

Ⅲ. 수 · 당과의 전쟁

1. 수와의 전쟁
2. 당과의 전쟁

Ⅲ. 수 · 당과의 전쟁

1. 수와의 전쟁

1) 수와의 관계

고구려는 초기의 성장과정에서부터 동북아시아의 패자적 위치에 오르기까지 주변 여러 민족과 투쟁 및 타협을 통해서 그 독자성을 견지해 왔다. B.C. 108년 衛氏朝鮮의 멸망과 함께 漢郡縣이 설치된 이후 본격화된 漢族과의 투쟁은 美川王代에 낙랑(313)·대방(314)을 병합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어 4세기 후반까지는 북중국에 세운 유목민의 왕조와 요동평야의 지배권을 둘러싼 상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5세기 이후 중국대륙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고구려는 이들 南北朝 여러 나라의 대립을 적절히 이용하여 외교적 균형을 취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이 기간 중 고구려는 중국 왕조들과 타협하면서 유용한 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요하 동쪽의 전 만주지역을 영토화하였고, 남으로 백제·신라를 압박하여 영역을 확장하였다. 나아가 長壽王代에는 國都를 國內城에서 平壤으로 옮김(427)으로써¹⁾ 北守南進政策의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이같은 고구려의 동정에 자극된 신라·백제 양국은 羅·濟同盟(433~553)을 체결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삼국간의 대립형태 속에서 균형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남진에 대한 나·제동맹군의 實戰的 대응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²⁾ 5세기 후반까지도 신라는 아직 약체성을 면하지

1) 왕권강화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강화라는 정치사적 입장에서 通溝세력과 귀족연립체제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韓國文化》 2, 서울대, 1981) 참조.

2) 광개토왕까지의 남쪽 척경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로 朴性鳳, 《高句麗의 南進發

못한 상태였으므로 동맹국으로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따라서 장수왕 63년(475) 고구려군이 백제 漢城을 공격하여 漢江 하류를 점유할 수 있었다.³⁾ 그러나 6세기 중반, 국력이 신장된 신라와 분발한 백제, 이 두 나라 동맹군의 북진에 의해, 陽原王 7년(551) 고구려는 그 동안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⁴⁾ 그러나 진흥왕 14년 신라는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하류지역을 탈취함에 따라 나·제동맹은 파괴되었고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⁵⁾ 이렇게 삼국이 격돌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의 대중국관계가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6세기 중반까지의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 몽고고원의 柔然, 그리고 吐谷渾 등과 다원적인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동북지역에서 小國際政治圈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적 天下觀을 형성하고 있었다.⁶⁾

그러나 6세기말에 접어들면서 내외정세가 급변하여 이에 대한 고구려의 대처방안도 새롭게 모색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첫째는 중국에서 통일제국인 隋나라가 출현했으며, 둘째는 고구려 내정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의 자리인 大對廬를 둘러싸고 귀족간에 권력투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당면한 과제는 수의 등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581년 수가 건국되자, 고구려는 平原王 23년(581) 12월에 즉각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했고 隋 文帝는 평원왕을 “大將軍遼東郡公”으로 책봉하였다. 이후 평원왕 24년 2회, 평원왕 25년에 3회, 평원왕 26년에 2회의 사신을 수에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구려는 4

展에 對한 研究》(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79)와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 46, 1984), 34쪽이 참고된다.

3) 신라는 450년 경까지 고구려와 외교관계를 가졌으므로 475년 경에도 고구려의 적수가 아니었음을 의식했다면 출병이 늦었다는 이유로 고구려와 정면대결을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李昊榮, 〈新羅 三國統一에 관한 再檢討〉, 《史學志》 15, 檀國大, 1981, 7쪽).

4)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신라·백제에게 상실한 원인은 돌궐의 위협 때문에 南顧의 여지가 없었던 까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盧泰敦, 〈高句麗의 漢水流域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1976).

5) 李昊榮, 〈高句麗·新羅의 漢江流域 進出問題〉(《史學志》 18, 1984) 참조.

6) 盧泰敦, 〈5~6세기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東方學志》 44, 1984; 《高句麗史研究》 I, 延世大, 1987, 424쪽).

년간 수에 계속 사신을 파견하여 우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의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를 관망하고 수의 반응을 주시하며 그 대비책을 모색했던 것 같다. 그런데 고구려는 평원왕 27년 남조의 陳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5년 동안 수와의 사신왕래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고구려·진 사이에는 수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남북조의 상례적인 왕조교체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589년에 수가 진을 멸하자 고구려는 크게 염려하여 평원왕 32년(590)에 병기를 수리하고 곡식을 비축해서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수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토를 지킬 대책을 마련하였다.⁷⁾ 진의 멸망에 따른 충격 속에서, 수의 통일이 미칠 국제적 파장을 강하게 의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아무런 수 문제가 고구려에 보낸 글 속에 “고구려는 비록 藩屬이라 칭하나 誠節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구려왕은 遼水가 넓다고 하겠지만 어찌 長江(양자강 ; 수가 양자강을 건너 진을 멸했다는 말)에 비할 수 있으며, 고구려 인구의 多少가 어찌 陳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내가 舍育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왕의 前過를 책망하는 동시에 한 장군에게 征討의 명령을 내릴 것이며 많은 국력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은근히 깨우쳐 주는 이유는 왕이 自新케 하려는 것이다(《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평원왕 32년).

이는 수에 대한 고구려의 철저한 臣屬을 강요한 것이다. 또 중국측 기록인 《隋書》에는 고구려가 몰래 사람을 수에 잠입시켜 弩手를 財貨로 매수해서 무기를 제조하며 또 수의 사신을 空館에 가두어 감시하고 騎兵을 동원하여 수의 邊人을 살해했다고 책망하는 기사가 보인다.⁸⁾ 고구려·수의 양국관

7)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평원왕 32년.

고구려의 대수·당외교 및 전쟁기록은 그 대부분이 중국 史書인 《資治通鑑》·《北史》·《隋書》·《舊唐書》·《新唐書》 등에서 발췌하여 《三國史記》에 轉載한 것인데 특히 《資治通鑑》의 기록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고구려의 외교도 그렇지만 전쟁에서 수·당군의 전쟁상황은 비교적 자세한 반면 고구려군의 활동은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자료의 한계성 때문인데, 아마도 고구려의 고유한 독자적 기록이 일실된 까닭이라 추측된다.

8) 이 기사는 《隋書》 高麗傳 및 《資治通鑑》에는 597년조에 들어 있지만,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는 590년조에 넣고 그 정당성을 註記하였다. 이에 대해 申采

계는 상호 불신의 단계를 지나 점차 적대적 대립의식으로 치닫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자극도가 고구려 쪽에는 한층 컸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 때 고구려에서는 사과와 뜻을 담은 국서를 수에 보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평원왕이 승하한 데도 있겠으나 국내의 政情에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평원왕 26년(584)만 하더라도 수 문제는 고구려 사신을 大興殿에서 융숭히 대접했는데 이 무렵은 수가 진을 멸하지 않은 때이므로, 수에서 고구려를 경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후 5년간 고구려가 수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고, 대신 평원왕 27년에 진으로 사신을 보냈으며 이듬해에는 고구려 도읍을 長安城으로 옮겼다. 이 장안성은 양원왕 8년(552)부터 축조하기 시작하여 35년 뒤인 평원왕 28년에 완성되어 옮긴 것이다. 이는 內城(在城)과 外城(羅城)을 공고히 쌓아 외적방어에 완벽을 기했던 것이라 하겠다.⁹⁾ 후일 고구려가 唐에게 패망될 때 平壤城이 당병에게 약 1개월간 포위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 고구려인들은 이 장안성을 난공불락의 堅城으로 믿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천도 또한 수에 대비한 방어체제인 동시에 수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당시 고구려에서는 淵蓋蘇文家가 집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개소문은 寶藏王 1년(642)부터 같은 왕 24년까지 24년간 莫離支로 집권했는데 그의 祖父가 집권한 것까지 포함하면 3대 120년 동안이다. 따라서 淵氏 집권의 출발점은 양원왕이 즉위한 545년으로 소급된다.¹⁰⁾ 하지만 이 소급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아 보장왕 1년부터 2대 60년간을 소급, 집권하였다고 하면 580년을 전후한 시기가 되어 평원왕말·영양왕초가 된다.¹¹⁾ 하지만 어느 견해를 따르든 580년대에 연씨가문이 집권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浩는 597년설을 취했는데 李萬烈도 597년설을 지지하면서 “嬰陽王의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李萬烈, 〈高句麗와 隋·唐과의 戰爭〉,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7, 493쪽). 영양왕의 정책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연개소문가의 정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듯하다.

9)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420쪽.

10) 李弘植,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306쪽).

11) 李昊榮, 〈高句麗의 敗亡原因論〉(《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篇, 1992), 63쪽.

므로, 대내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들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왕과 일부 귀족들은 수와 친화하려는 主和派的 입장에 서고, 연씨정권과는 主戰派的 입장을 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²⁾ 그렇지만 親王의 주화과의 발언권이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양파의 갈등 속에서 수와 화해하려는 외교적 노력보다는 강경책이 단연 우세했던 것이다. 그것은 고구려의 遼西 공격이 말해 주듯이 이 공격은 우연한 돌발사태가 아니라 주전파의 정책이 관철된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¹³⁾

하여튼 영양왕이 즉위(590)하자 수는 사신을 보내어 왕을 “遼東郡公”으로 책봉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고구려에서 “王”으로 책봉하기를 요청하여 “高句麗王”으로 책봉되었다. 전통적으로 조공과 책봉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隋가 일차 책봉에서 왕으로 봉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남북조시대 “요동” 혹은 “東夷”를 지배하는 고구려 왕으로서의 독자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의 고구려왕에 대한 태도는 고구려의 자존심을 매우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영양왕 2년(591)과 4년·8년 등 간헐적인 使行이 있었지만, 이는 수의 태도를 확인하는 데 불과했을 것이다. 그 중간의 공백은 고구려 자체내에서 對隋政策 결정과정의 진통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⁴⁾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처럼 580년 전후에 연씨가 집권했다면 정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도 위의 공백기간은 필요했을 것이며, 대수정책은 자파의 세력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강경했으리라고 믿어진다.

마침내 영양왕 9년에 고구려는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함으로서, 수에 대한 정면 대결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곧 이어 隋軍 30만의 침공이 있었으며 이후 고구려는 영양왕 11년과 같은 왕 25년에도 遣使했지만, 이는 적정을 엿보고 수의 태도를 유화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했을 것이다.¹⁵⁾ 따라서 실제로는

12) 李昊榮, 위의 글, 63쪽.

13) 이와 달리 安藏王 이후 왕위계승전을 경험하고 막리지를 중심으로 귀족연립체제가 유지되었고 嬰陽王대에는 온달·을지문덕 등 평양계 귀족들이 대외강정책을 주도하였다는 견해도 있다(林起煥,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29~39쪽).

14) 설사 주전파의 강경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결행에는 적지 않은 망설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15) 이런 외교방법은 신라의 대당전쟁중에도 진행되었다. 이는 신라가 전쟁의 대가

양국간의 대립상태는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고구려 영양왕 18년(607)에는 突厥 啓民可汗의 장막에서 고구려 사신과 隋 煬帝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돌궐은 동·서로 나뉘어져 584년 경 수에 복속되었고, 586년에는 土谷渾도 복속되었다. 동돌궐의 계민가한은 수에 복속하는 한편 고구려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구려는 동돌궐과 연결하여 수에 대응코자 했던 것이다. 이 때 黃門侍郎 裴矩는 고구려 왕을 入朝시킬 것을 건의했고, 양제는 이를 받아들여 고구려 왕이 입조하지 않으면 계민을 거느리고 치겠다고 고구려 사신에게 협박하였다.¹⁶⁾

한편 당시 신라와 백제도 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비록 실천에 옮겨지지지는 않았지만 백제는 武王 12년(611)에 수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할 날짜까지 정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이런 움직임은 수의 고구려 침략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수를 둘러싼 삼국의 알력이 깊어지자 고구려는 북방의 돌궐·말갈·거란 등과 연계하는 정책을 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고구려는 수와의 타협보다는 강경대응이 고구려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러한 대수강정책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연씨정권이 자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대외정책은 고구려 성장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소신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고구려는 4차에 걸친 대수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독자성을 유지·과시하였다.

2) 고구려의 요서 공격

수의 강압적 패권주의는 남북조시대의 국제외교적 균형상태에서의 형식적 조공과 책봉을 넘어 수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려 하였다. 이것은 고

와 독자성을 목적으로 개진한 것인데, 당이 침략해 왔으므로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 당군만 물러가면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수가 침입하지 않으면 고구려의 독자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죄사를 보내어 수를 유화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강경파의 주장이 무엇이었는가는 자명해진다 하겠다.

16)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8년.

구려의 독자성 유지를 위협하는 것으로써 양국간의 외교적 대립은 심각해졌다. 특히 고구려 내정에서 연씨가 집권한 시기라면 새로운 집권자들의 권력 안정을 위해서도 대외적으로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수의 入朝요구는 고구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영양왕 9년(598)에 수의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와 군사적 대결을 결행하였다.

고려왕 元이 말갈의 무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遼西를 침구하므로 營州總管 韋冲이 이를 격퇴하였다(《資治通鑑》권 178, 隋紀 2, 高祖 上之下).

이 때 위충의 군대가 지방의 소수병력이었다고 보면, 고구려군 또한 소수병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史書의 기록대로 고구려 왕이 親征에 나선 것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격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수병력일 수도 없었을 것이다.¹⁷⁾

이에 수 문제는 이 해 6월에 水陸 30만 군을 동원하여 漢王인 楊諒(文帝的 넷째 아들)과 王世積을 원수로 삼아 臨渝關으로 나가게 했다. 또 周羅睺(본래는 陳의 장수)를 수군총관으로 삼아 산둥반도의 東萊로부터 바다를 건너 平壤城을 직접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육군은 임유관에서 홍수를 만나고 군량운반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들은 굶주리고 유행병까지 겹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 주라후의 水軍도 평양을 향해 항해하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나서 兵船이 표몰되었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해 9월에 회군하였는데, 이 때 죽은 수군이 10명 중 8·9명이었다고 한다.¹⁸⁾ 물론 갑작스러운 출병에 군량수급의 차질과 뜻밖의 천재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구려군에게 패퇴한 것을 은폐한 기록이라고 보여진다.¹⁹⁾

17) 親征을 강조하면서 “왕권의 위상이 두드러져 보이는 영양왕대에도 정국운영의 주도권은 귀족세력이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양왕권의 강화와 안정의 면모도 계속되는 對隋전쟁의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왕권의 독자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 견해도 있으나(林起煥, 앞의 글, 24~25쪽), 전쟁상황으로 보아 親征기록은 극히 의심스럽다.

18) 《資治通鑑》권 178, 隋紀 2, 高祖 上之下, 開皇 18년 2월·6월·9월.

이렇게 고구려의 선제공격에 대응한 隋軍이 자연재변에 의하였든 고구려군의 격전에 의해서든 물러남으로써 당시 집권과였던 연씨가문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고 수와 대립하는 고구려의 자신감은 한층 고조되었을 것이다. 이 전쟁 직후인 영양왕 11년(600)에 고구려의 古史인 《留記》 100권을 요약하여 《新集》 5권을 편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선제공격으로 수군을 저지한 것은 고구려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구려가 왜 요서지방을 공격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리한 지점을 먼저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으로 추측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고구려쪽에서 보면 渡河作戰이 쉽지 않고 설사 요서의 유리한 지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수군이 공격해 올 경우 背水陣인 까닭에 국방상 전략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외교적으로 고구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수에 대해 군사적으로 응징하여 새로 등장한 수를 제압함으로써 고구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수의 패권주의를 분쇄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군사적 시위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이유를 고구려 내정에서 구해볼 수 있다. 당시는 연개소문가문이 집권하고 있었으므로 집권층이 친연씨파와 반연씨파로 양립되어 있었다고 할 때, 집권한 연씨파의 주도하에 대수전쟁을 일으켜 반대파의 추종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자파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대수전쟁의 명분은 역시 고구려의 독자성 유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1차 전쟁의 결과 수는 고구려 왕에게 책봉한 관작을 박탈하였지만,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어 사죄함으로써 양국간의 평화적 교섭이 10여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수는 대내적 불안정과 돌궐 등 주변 문제로 고구려와 전쟁을 재개할 형편이 아니었겠지만, 고구려 또한 수를 재공격한 일이 없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또 백제는 惠王 원년(598)

19) 《丹齋申采浩全集》上(乙酉文化社, 1972), 262쪽.

20) 이병도, 《대외항쟁사》(국방부 정훈부, 1955), 25쪽.

에 수나라로 사신을 보내어 수의 고구려 침공에 嚮導가 되겠다고 했지만, 수는 고구려가 사죄하여 이미 용서했으므로 다시 치지는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고구려의 요서공격은 소수 병력이었으며 親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수에 대한 고구려의 요서지방 선제공격은 비단 대수전쟁뿐 아니라 이후 대당전쟁을 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요서공격은 근본적으로 고구려의 독자성을 견지하려는 극단적인 방법이었다고 하겠다.

3) 수의 침입과 고구려의 살수대첩

수에서는 문제에 이어 煬帝가 즉위하였다(605). 그는 고구려 영양왕 23년(612)과 24년·25년의 세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입했는데, 612년 전쟁이 가장 큰 규모였고 전쟁은 모두 수의 일방적 침략을 고구려에서 방어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수 양제는 남조의 昏主의 皇帝와 북조의 폭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博學·能文하였고 사치·방탕하며 시기하고 흉악하여 살육을 좋아했다고 한다. 이런 양제는 곧 수도를 長安에서 洛陽으로 옮겨 그 둘레에 2천여 리의 壕溝를 파고 낙양성을 축조하였으며 洛水 위에 顯仁宮을 지었다. 또 낙양에서 長州까지 大運河를 뚫어 남북의 교통과 식량수송에 이용하였는데 이를 고구려 침략의 군대·노무자·군량보급선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한편 6세기 후반부터 더욱 강성해진 突厥은 隋代에 들어와서 동·서돌궐로 분열되었다. 585년에 동돌궐이 복속되자 수 양제는 이들을 안무하기 위해 啓民可汗의 장막을 순시하였다. 이 때는 고구려 영양왕 18년(607)으로 고구려 사신 또한 계민에게 파견되었으므로 공교롭게도 수 양제와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양제와 裴矩는 고구려의 입조를 강요했고 입조하지 않으면 계민을 시켜 명년에 정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²¹⁾ 이 때 고구려는 돌궐과 우호관계를 맺어 수를 견제할 의도였을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²²⁾ 수는 고구

21)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8년.

22) 黃約瑟, 〈試論隋代對高句麗的認識〉(《高句麗文化國際學術會發表要旨》); 延邊, 1993)

려 침략정책을 굳히고 610년에는 전쟁준비를 명령하였다. 즉 兵具와 器仗을 점검하여 모두 精新케 하되 함부로 만들면 죽이게 하였던 바 兵馬가 10만 필에 이르렀다고 한다. 611년 4월에는 양제가 涿郡 臨朔宮에 이르러 전국의 참전군대를 탁군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612년 정월, 출병에 앞서 장문의 조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고구려 침략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 요지는 첫째 고구려가 변성한다는 것, 둘째 거란·말갈과 친하며 요서를 침범한다는 것, 셋째 여타 종족의 조공길을 차단한다는 것, 넷째 藩禮를 하지 않는다는 것, 다섯째 고구려 내정에서 强豪가 국권을 잡고 백성에게 혹독한 정치를 한다는 것 등이었다.²³⁾

수군은 좌·우군 각 12군 도합 24군을 조직하여 총 113만 3천 8백 명이었는데 여기에 군량과 무기를 운반하는 餽運者가 그 배나 되었다. 이들 24군의 명칭을 각각 道라 하여 左第1軍은 鏐方道, 第12軍은 襄平道라 하였는데 단지 그것은 명칭일 뿐 실제 각군의 進軍路는 아니었다. 이들 군에는 大將과 亞將을 각 1인씩 두어 통솔케 했으며 기병 40隊와 보병 80隊로 편성하였다. 기병은 1대가 100명, 10대를 1團이라 했으며 보병은 4단으로 편성하여 각 단마다 偏將 1명씩을 두었다. 또 각 단마다 鎧冑·纓拂·旗旛의 빛깔을 달리하여 하루에 1군씩 출발시키되 40리 간격을 두어 40일 만에 출발을 완료케 하니 그 首尾가 이어지고 鼓角이 서로 들리면서 깃발이 960리에 뻗었다고 한다. 당시 충지회분부는 수 양제가 거느린 御營軍으로 12衛 3臺 5省 9寺로 나누어 내·외·전·후·좌·우의 6軍이 차례로 출발하여 그 대열이 80리를 이었는데 이같이 성대한 출병은 近古에 없었다고 하였다.²⁴⁾ 그러나 수에서는 親征反對者와 反戰論者가 있었고,²⁵⁾ 또 병사와 식량운반자 중에는 고역을 이기지 못해 群盜가 되는 자도 있었다고 하므로 비록 수의 軍勢가 대단했지만 수군의 戰意는 높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²⁶⁾

에서 “隋煬帝和突厥啓民可汗之會，可以說是隋煬帝一朝對外關係的一個重要轉捩點”이라 하였다. 《隋書》권 67, 列傳 32, 裴矩傳에서는 위의 기사에 이어 “高元不用命 始建征遼之策”이라 하였다.

23)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23년.

24) 《資治通鑑》권 181, 隋紀 5, 煬帝 上之下, 大業 8년.

25) 《隋書》권 78, 列傳 43, 季才 耿詢.

이렇게 해서 고구려 영양왕 23년(612)에 수의 2차 침입이 시작되었고 그 開戰은 요하에서였다. 수군은 宇文愷에게 浮橋를 만들게 하여 渡河作戰을 개시하였다. 이 때 요하를 수비하고 있던 고구려군은 수군의 침략에 완강히 항전하였다. 수의 대장군 麥鐵杖·호분랑장 錢士雄·孟叉 등 여러 적장을 죽였다는 점으로 보아 수많은 적병을 사상시키는 전과를 올렸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고구려군측에도 1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으며 끝내 요하방어는 실패하였다. 요하를 건넌 수군이 곧 遼東城을 포위하자 고구려군의 거센 항전으로 3개월간이나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요동성 수비군은 성을 굳게 지키고 기회를 보아 나가 싸우면서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면 항복하겠다고 거짓 전하여 적의 공격을 이완시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였다. 또 이 주위에 있는 諸城도 굳게 지켰다. 따라서 별다른 전과를 얻지 못한 수 양제는 요동성 서쪽으로 수십 리 떨어진 六合城에 진을 치고, 于仲文·宇文述 등 9軍의 별동부대를 편성케 하여 평양을 直攻케 하는 새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전략은 출병초에 左翊衛大將軍이었던 段文振의 주장이기도 했다.²⁷⁾

한편 수의 水軍을 거느린 右翊衛大將軍 來護兒는 바다를 건너 溟江(大同江)을 거슬러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지점까지 이르렀다. 이 때 고구려군이 저항했으나 수군에게 밀리니 수군은 승세를 타고 평양성으로 향하려 하였다. 여기서 내호아와 부총관 周法尙 사이에 전술상 異見이 있었는데 내호아는 주법상의 “諸軍의 도착을 기다려 진격하자”는 주장을 일축하고 정병 4만 명을 뽑아 평양을 직공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수의 수·륙 양군은 평양 근처에서 만날 약속을 미리 정한 듯하다.

내호아군과 싸우던 고구려군은 평양성의 羅城(外城)에 있는 빈 절(寺)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고 거짓 패하면서 성안으로 적을 유인하였다. 적군이 입성하여 물화를 약탈하느라고 대오가 무너진 틈을 타서 고구려 복병이 달려가

26) 《資治通鑑》권 181, 隋紀 5, 煬帝 上之下, 大業 7년.

27) 段文振은 출병초에 병사했다(《資治通鑑》권 181, 隋紀 5, 煬帝 上之下, 大業 8년).

급히 쳤다. 내호아는 겨우 죽음을 면했지만 4만 명은 일시에 섬멸당하여 도망간 수군은 수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고구려군이 대승을 거두었다.

이같이 수군이 평양성으로 육박하자 고구려는 境內의 병력을 대거 집결시켰는데 그 列陣이 수십 리에 걸쳐 있으니 이를 본 수의 諸將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한다. 이 때 고구려군을 지휘했던 장군은 建武(영양왕의 아우, 후일 榮留王)였는데 그는 驍勇이 絶倫한 인물로 높이 평가되었다.²⁸⁾ 建武軍이 평양에서 적의 水軍 4만을 괴멸시킨 것은 수의 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 수군은 무기·식량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이를 망실하거나 육군에게 보급하지 못했다. 또 于仲文 등 諸軍(9軍)과 합류하지 못한 채 패배하여 그들의 합동작전도 무산되었다. 이 때문에 고구려군은 평양 교외 30리 지점까지 접근했던 우중문의 군사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수의 제군은 요동에서 압록강 서쪽까지 진입했는데, 우중문·우문술 등 9軍으로 편성된 평양직공부대는 30만 5천 명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병사는 1백일 분의 식량과 무기·의복을 지급받아 1인당 곡식 3石에 해당하는 중량을 운반해야 했다. 이에 군량을 버리는 자는 참형한다는 軍令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그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힘들어 행군하면서 식량을 땅에 묻어버린 결과 도중에서 굶주리게 되었다.²⁹⁾

한편 고구려에서는 요동 諸城의 고수에도 불구하고 적의 대병력이 평양을 향해 남하하여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적의 형세를 정탐하려고 항복한다는 구실로 大臣인 乙支文德을 적진에 파견하였다. 우중문 등은 “고구려왕이나 을지문덕이 오거든 반드시 사로잡으라”는 수 양제의 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수군의 慰撫使였던 尙書右丞 劉士龍의 반대로 놓아주고, 이를 후회하여 다시 잡으려 했을 때는 이미 을지문덕이 압록강을 건넌 뒤였다.

군량이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우중문은 군의 지휘체계가 1

28) 《北史》권 76, 列傳 64, 來護兒. “高元弟建 驍勇絶倫 率敢死數百人 來致師”라 했지만 수백 인이 4만 명을 전멸시켰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丹齋申采浩全集》上, 268쪽에서는 建武의 戰功이 乙支文德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다.

29) 申采浩는 위의 책, 268쪽에서 “司馬溫公 〈通鑑考異〉에 ‘來護兒의 糧船이 敗回하지 아니하였더라면 宇文述의 薩水의 敗가 없었으리라’ 하였으니 대개 如實한 말인가 하노라”고 하였다.

인에게 있지 않아서 적을 이기기 어렵다고 하였고, 수 양제는 우중문의 진술에 따르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우문술도 우중문의 진군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³⁰⁾

을지문덕은 수군의 飢色과 지휘통제의 동요를 보고 그들에게 더욱 피로를 가중시켜 장거리로 유인하고자 宇文述軍을 맞아 하루 7번 싸워서 7번 패주하는 식의 후퇴작전을 이용하였다. 피로에 지친 적군은 더 싸울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勝勢를 타고 薩水を 건너 평양 교외 30리 지점까지 육박하여 산을 의지해 진을 쳤다.

바로 이 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戰功을 비웃는 내용의 五言詩를 전하며 수군이 물러나면 고구려 왕이 양제의 행재소에 나아가 入朝하겠다고 하였다.³¹⁾ 이에 수군이 거짓 항복을 이유로 살수를 반쯤 건넜을 무렵, 을지문덕은 복병을 일으켜 적의 後軍을 맹공하였다. 적장 辛世雄을 격살하고 적의 대군을 함몰시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를 고구려의 薩水大捷이라 한다. 처음 수의 군사 30만 5천 명 중, 하루밤낮으로 450리를 달아나 요동성에 돌아와 보니 겨우 2,700명뿐이었다고 한다.³²⁾

결국 수 양제는 엄청난 군사를 전사시키고 많은 무기를 탕진하며 戰意를 상실한 채 패퇴하였다. 고구려군은 요동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략을 모아 적을 격퇴했던 것이다.

사상 유례가 드문 대병력을 동원해서 고구려군에게 패퇴당했던 수 양제는

30) 이 부분에 대해 李萬烈, 〈高句麗와 隋・唐과의 戰爭〉(《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7) 499쪽에서 “隋煬帝는 宇文述을 제쳐 두고”라 한 표현은 모호하다. “時帝以仲文有計畫 今諸軍諮稟節度 故有此言 由是述等不得已從之”(《資治通鑑》 권 181, 隋紀 5, 煬帝 上之下, 大業 8년).

31) 《三國史記》 권 44, 列傳 4, 乙支文德.

32) 于仲文은 左翊衛大將軍, 宇文述은 右翊衛大將軍인데 다시 지휘권을 于仲文에게 맡도록 수 양제는 확인시켰다고 하겠다. 그런데 實戰의 패배자는 宇文述로 되어 있다. 을지문덕은 五言詩를 于仲文에게 보내고 旋師는 宇文述에게 요청했다. 패전의 책임은 양인에게 있지만, 《資治通鑑》은 “獨繫仲文”이라 하면서 宇文述의 아들이 수 양제의 사위인 때문이라 했다. 또 乙支文德을 놓아준 劉士龍에게 패전의 모든 책임을 지워 斬刑하였다. 그러나 實戰과정상 우문술과 우중문의 역할이 모호하게 기록되었음은 분명하다.

다시 郭榮의 親征反對를 무릅쓰고 고구려 영양왕 24년(613)에 3차로 침입했다. 수 양제는 宇文述·王仁恭 등과 함께 군사를 통솔하고 3월에 요하를 건너 요동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新城의 수비군 수만 명은 왕인공의 침공을 막아 성을 고수했고 遼東城 또한 20여 일을 포위당했지만 끝까지 항전하였다. 특히 요동성 침공에는 수 양제가 직접 지휘를 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攻城具인 飛樓·橦·雲梯·地道³³⁾ 등을 사용하여 밤낮 쉬지 않고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이에 고구려군은 길이 15丈의 衝梯를 타고 성을 오르는 적병에 대항하여 단병접전으로 이를 물리쳤다. 또한 수군은 흙을 넣은 포대 1백만 개를 쌓아올려 魚梁大道란 것을 만들었다. 그 넓이는 30步이고 높이는 성과 같아서 적병들은 이것을 타고 올라와 싸우기도 하였다. 또 성과보다 높은 八輪樓車를 만들어 魚梁道를 중간에 끼우고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해 왔다. 요동성군은 약전고투하며 방어했는데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를 냈다. 때마침 수 내부에서 反戰運動이 고조되어 禮部尙書 楊玄感的 반란이 일어나자 수군은 많은 무기와 식량을 버리고 물러갔다.

고구려의 영양왕 25년(614)에도 수 양제는 百官들에게 고구려 침공을 의논하도록 명령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수군의 계속된 패배로 인하여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과 내부의 반전의식, 재정적 궁핍과 민심의 이반 등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해 7월 수 양제는 懷遠鎮에 와서 募兵하려 했지만 징발된 병사조차 도망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양을 공격할 목적으로 來護兒에게 水軍을 주어 卑沙城을 침입했지만 고구려군에 의해 쉽게 격퇴된 듯하다.³⁴⁾

이상에서 영양왕 9년(598)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한 데서부터 4차

33) 雲梯는 城을 올라가는 사다리, 地道는 땅 속을 뚫고 들어가는 기구이며, 飛樓는 공중에 높이 세운 집, 橦은 적진을 뚫는 수레라고 한다(李丙壽, 《國譯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315쪽 및 김종권 역, 《東國兵鑑》, 한국자유교육협회, 1972, 62쪽 참조).

34) 그러나 史書에서는, 양현감과 내통했던 망명객 斛斯政을 수에 돌려주고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어 항복을 원하므로 내호아가 돌아갔다고 하였다(《資治通鑑》권 182, 隋紀 6, 煬帝 中, 大業 10년 7월).

에 걸친 수의 침략과 고구려의 반격을 살펴보았다. 이들 전쟁과정은 침입하는 수군을 격퇴시켰다는 면에서 고구려의 일방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수에 대한 고구려의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고구려의 對隋戰略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독자권을 유지하여 수와 대등한 국제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했던 것이라 믿어진다. 수가 침략하지 않던 장기간에 걸쳐 고구려가 한 번도 수를 공격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 증거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대수전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먼저 지키고 뒤에 공격하여 적을 격퇴시키는 전술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요동성·신성 등에서 “嬰城固守”가 일관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둘째, 위의 전술은 淸野戰術을 수반했다는 점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성 밖의 모든 백성을 성안으로 피란시켜서 고구려군의 항진을 돕게 하는 한편 적에게 노역·식량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⁵⁾

셋째, 伏兵을 일으켜 적을 급습하는 전술이었다. 이는 적을 단시일 안에 먼거리를 달려오도록 유인함으로써 적의 식량 부족과 피로를 초래케 한 다음 숨겨둔 북병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도 사용되었다.

넷째, 게릴라전술이 동원되었다. 적과 직접 대결을 피하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적의 해이한 틈을 타서 습격하여 자주 적을 괴롭히는 전술이었다. 성문을 닫고 지키다가 성문을 열거나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급습하기도 했다.

그 어느 전술이든 城을 중심으로 침입한 적을 격퇴시키는 守城戰이 고구려 전술의 기본이었고 이것은 이후 대당전쟁에서도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의 침입은 극복했으나 곧 이은 당의 건국으로 고구려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35) 《北史》권 76, 列傳 64, 來護兒.

고구려의 대수전쟁표

연 도	진 장	수 군	고 구 려 군
598	(요하)→遼西	영주총관 韋冲	말갈병 1만명
	臨渝關→요하 東萊→平壤(미수)	水・陸軍 30만명 육군: 漢王 楊諒・王世積 수군: 周羅睺	(요하 수비군) (고구려 水軍)
612	(요하)→요동성(요양) 압록강 살수(청천강) 평양	陸軍 113만 3,800명 煬帝 親衛軍 6 기병 左 軍 12 보병 右 軍 12 치중병 지휘자: 錢士雄(전사) 王仁恭・麥鐵杖(전사) 孟 叉(전사)・何稠 9軍지휘장군: 宇文述・于仲文 荊元恒・薛世雄 辛世雄(전사)・張瑾・趙孝才 崔弘昇・衛文昇 水軍: 4만명 이상 來護兒・周法尚	요하 수비군 요동성 등 제성군 乙支文德軍 建武軍 (10만 이상)
613	(요하)→新城 遼東城	煬帝・宇文述・王仁恭 吳興・沈光	요하 수비군 신성군 요동성군
614	(산동반도)→卑奢城	來護兒	비사성군

〈李昊榮〉

2. 당과의 전쟁

1) 당과의 관계

수나라는 대내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려다가 멸망하였다. 과도한 토목공사 및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어 611년 이래 전국 각처에서 반항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들 중에 617년 晉陽(山西 大原縣)에서 起兵한 唐公 李淵이 여러 군웅과 연계하여 수를 무너뜨리고 당을 세우니(618) 그가 唐 高祖였다.

당이 성립한 초기, 고구려의 대당관계는 표면상 이전의 대수관계와 유사했으나 그 내면은 아주 판이했다. 이 때는 고구려에 영류왕이 재위하였는데, 당은 돌궐 등 주변민족을 굴복시켜 가면서 한편으로 민심수습에 많은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전쟁보다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¹⁾ 고구려는 영류왕 2년(619) 이후 보장왕 원년(642) 경까지 매년 당에 1회 정도의 사신을 파견하며 교섭을 지속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양국의 교섭 내용을 살펴보면, 당에서는 고구려에 대해 평화공세를 취하여 은근히 압박하면서 당 자체의 민심을 수습코자 하는 二重의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즉 영류왕 5년에 당은 “지금 二國이 和親하여 義에 어긋난 바가 없게 되었다”면서 麗·隋전쟁 당시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자고 고구려에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인으로 중국에 억류되었거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쇄환하는 한편 1만여 명의 중국인을 당으로 돌려보냈다.²⁾ 이는 양국의 주민들에게 화해분위기를 느끼게 했을 것이며, 唐帝의 ‘恩德’에 대한 선전이 아닐 수 없었다.

고구려는 영류왕 7년에 사신을 보내어 曆書를 요청하였는데, 당은 刑部尙書 沈叔安을 파견하여 “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으로 책봉하는 동시에 도교의 道士가 天尊像(神仙像)을 가지고 와서 老子(道德經)를 왕과 국민에게 교설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당에 사람을 보내어 佛·老의 敎法을 배우도록 하였다. 당에서 고구려에 도교를 전한 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당시 고구려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화였다면 하나의 관심거리였을 것만은 틀림없다. 영류왕이 도교와 아울러 불교를 배워오게 한 점은 기존 불교계를 의식했거나 그 친밀성을 암시하는 조치였다고 해석된다.

1) 申瑩植, <三國의 對中國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315쪽. 그런데 “평화적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쌍방에서 포로 전인원을 교환한 것은 아니었다. 영류왕 24년에 唐使 陳大德이 고구려 경내를 순방하면서 수군으로 포로된 자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보인다(《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류왕 5년).

그런데 보장왕 2년(643)에는 연개소문이 도교의 수입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당에 요청했는 바, 당 태종은 도사 叔達 등 8인과 노자의 도덕경을 보냈으므로 僧寺를 취하여 이들을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도교는 당 고조가 좋아했다지만, 이런 문화전파를 통하여 고구려가 당에 매료될 수 있고 당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당이 도교를 고구려에 전파한 것은 문화적 기미정책으로서 당에 대한 고구려의 추종을 도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도교사상에 매료되었던지 아니면 대당관계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던지 왕과 연개소문이 도교의 수입을 주장한 점으로 보아 그것이 對唐和親의 일환이었다고도 믿어진다.³⁾

영류왕 11년(628)에는 고구려 地圖를 당에 보냈는데, 후일 당의 사신 陳大德이 고구려 지형을 實査했던 점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당에서 전략·전술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도를 요청한 것이라 생각된다.⁴⁾ 그리고 영류왕 14년에는 당의 사신 長孫師가 와서 麗·隋전쟁 때 전사한 수군의 해골을 물어주고 위령제를 지내는 한편 고구려가 수의 침략을 물리치고 세운 기념탑인 京觀을 헐어버리게 했다. 이런 행위가 영류왕 2년 전쟁포로 교환 당시 함께 진행되지 않고 이제 다시 추진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과거 당 고조의 대내적 민심수습책과 고구려에 대한 평화공세를 본받아 당 태종이 답습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和親을 가장하여 고구려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특히 戰勝의 상징인 경관을 당의 요청에 의해 헐어버린 것은 평화적 화해의 표징일 수도 있지만 고구려인에게 더 없는 불쾌한 자극이겠으나 이를 감내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고구려에 대한 臣屬 또는 정벌론이 대두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당 고조 7년(고구려 영류왕 7년; 624)에 고조는, 고

3) 이에 대해서는 李萬烈, 〈高句麗 思想政策에 대한 몇 가지 檢討〉(《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叢》, 1971)에서 고구려 사상계의 분열을 논했고, 李乃沃,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歷史學報》 99・100, 1983)에서 중국의 도교 흐름과 성격을 살펴 연개소문의 도교진흥책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도교를 연개소문 정권의 사상적 무기로 삼아 왕권을 배척하려는 데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도교의 장려에 대한 불교계 반발이 사상계의 분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대당관계로 보면 연개소문도 “대당전쟁”만은 피해보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소위 “封域圖”라는 것은 당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믿는다.

구려가 수에 稱臣했지만 끝내 수 양제를 거역하였으므로 굳이 칭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수의 遣臣으로 당시 侍中이었던 裴矩와 中書侍郎 溫彥博이 반론을 폈다. 周代에는 箕子國에 봉해졌었고 漢代에는 玄菟郡이었으며 魏晉 이전까지는 封域에서 가까이 있었으니 고구려가 칭신하지 않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함으로써 고조도 이를 수긍했던 것이다.⁵⁾ 결국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패권주의의 지향에 있어서는 당도 수와 다를 바 없었으며 이런 주장은 唐帝를 둘러싼 측근세력 일수록 강했다고 보인다.⁶⁾ 그리고 고구려가 칭신하여 藩禮를 행하지 않으면 四夷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런 가운데 고구려는 영류왕 23년(640)에 世子 桓權을 入唐시켰다. 이는 당의 평화공세가 영향을 미친 증거인지 모르나 고구려는 평화공존의 뜻을 당에게 충분히 보여준 것이며 외교적 성의를 다했던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은 職方郎中 陳大德을 파견했는데, 그는 고구려의 地勢와 방어체제를 살살이 살피고 돌아갔다. 그가 고구려 경내를 순방할 때 가는 곳마다 고구려 관리들을 물화로 매수하여 어디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어 虛實을 살폈지만 고구려는 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고구려 지도에 따른 실사를 마친 셈일 것이다. 더욱이 그가 돌아가 당 태종에게 보고하자, 태종은 수록양면 작전에 의하여 고구려 정벌의 뜻을 피력하기에 이르렀다.⁷⁾

이같이 당의 평화를 가장한 문화적 기미정책 속에, 고구려도 對唐敵對意識이 높아져 그 대비책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이미 영양왕 말기부터 축조하기 시작했던 千里長城이 16년 만인 영류왕 14년(631)에 완성되어 동북의 扶餘城으로부터 서남의 바다에 이르렀다.⁸⁾ 이 장성은 수와의 전쟁을 마치고 착공된 점과 그 축조의 위치로 보아 당의 침입을 방어하여 국가를 수호할 목적이었음이 확실하다.⁹⁾ 또한 수와의 전쟁 중 훼손되었던 요동지방의 성벽을 재축조하고

5) 《舊唐書》권 199 上, 列傳 149 上, 東夷 高麗, 武德 7년. 이 때의 裴矩의 말은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8년조에 실려있는데 배구가 수 양제에 했던 말과 매우 유사하다.

6) 黃約瑟, 〈試論隋代對高句麗的認識〉(《高句麗文化國際學術會發表要旨》; 延邊, 1993).

7)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류왕 24년.

8)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류왕 14년.

병력과 민호를 충원하여 수비를 강화했을 것은 능히 추측되는 바이다.

그런데 고구려 內政에는 淵蓋蘇文의 쿠데타로 큰 변혁이 일어났다. 영류왕 25년에 중앙정계로부터 천리장성 감독관으로 밀려났던 연개소문이, 大對盧였던 그의 아버지가 죽자 당연히 父職을 이어받을 차례였으나, 그의 성격이 포악하다 하여 귀족들이 반대하였다. 연개소문이 애원했으므로 막리지를 삼았지만 왕과 귀족이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를 알게 된 연개소문은 部兵을 모아 校閱을 빙자하고 大臣들을 초청하여 1백여 명을 죽이고, 다시 왕궁으로 달려가서 영류왕을 시해한 다음 보장왕을 즉위시키고 그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¹⁰⁾ 앞서서도 말했지만, 연개소문가는 그 祖父 때부터 집권해 왔기 때문에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하여 대수전쟁을 야기시켰고 수의 침략을 물리친 대내외적 정치주도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개소문가는 고구려의 독자성을 견지하려는 직선적 자주파이며 대수전쟁에 승리한 제일의 공로자였던 한편, 후일 고구려 패망의 遠因을 제공한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빛나는 가문을 계승한 연개소문이 부직을 이어받아 정권을 장악하려는 욕망은 이해될만 하나, 그 동안 많은 반대세력을 갖게 된 데 문제가 컸던 것이다. 영류왕과 대신들이 연개소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로 보아 국왕을 중심한 王黨派와 극심한 대립을 보였으며, 또 安市城主는 연개

9) 이 천리장성은 扶餘城에서 新城·蓋牟城·遼東城·建安城·卑奢(沙)城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李萬烈, 〈高句麗와 隋·唐과의 戰爭〉,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7, 502쪽).

10)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류왕 25년 및 권 49, 列傳 9, 蓋蘇文. 또 《日本書紀》권 24, 皇極天皇 원년조에는 “(작년) 9월에 大臣 伊梨柯須彌가 大王을 弑害하고 아울러 伊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죽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大對盧와 莫離支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대대로와 막리지가 大人·大首長을 뜻하는 同一語로 보는 견해가 있고(末松保和,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160쪽), 이 설에 따르면서도 사료에 보이는 ‘大臣’·‘大人’·‘大對盧’·‘莫離支’가 같은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막리지는 數名이 동시에 존재하고 정치적 권한이 國事に 한정되었지만 연개소문이 집권하면서 軍事權까지 장악하여 太莫離支가 되었다고 한다(請田正幸, 〈高句麗莫離支考〉, 《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5, 120~125쪽). 그러나 본래 對盧가 大對盧로 분화되어 연개소문의 父가 대대로였고, 막리지가 동시에 여러 사람이었으므로 太莫離支 또한 연개소문 이전에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스스로 대막리지가 되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소문 집권에 不服했다는¹¹⁾ 점으로 미루어 중앙정계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르기까지 친연씨파와 반연씨파인 왕당파로 분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연개소문파에는 동족인 연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므로¹²⁾ 정계의 분열상이 짐작된다. 이같은 반대파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政敵을 숙청함으로써 당시 고구려의 중요한 정치적 엘리트들 半減시키고 내외의 정책 방향을 폭 넓게 논의·결정할 수 없는 경색된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고구려의 변동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온 것이다. 이리하여 폭압은 더욱 심해지고 일체의 반대의견이 묵살된 채 내외의 정책은 친연개소문파에 의하여 추진되었다.¹³⁾

그런데 문제는 이런 政情이 대당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연개소문이 비록 대외강경파로 알려졌지만, 그도 대당전쟁만은 피해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즉 이미 앞에서 말한 도교 수입도 그 예이지만 보장왕 3년(644)에는 연개소문이 당에 白金을 보내고 또 관리 50명을 보내어 宿衛케 할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당은 이를 거부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죽였다는 점을 들어 연개소문을 비난하였다.¹⁴⁾ 이런 상황에서 연개소문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강경한 대외정책이 불가피하였고 당에서는 고구려의 政亂을 침략의 기회로 활용하게 되었다.

당의 대고구려정책은 이미 영류왕 7년(624)에 분명해졌지만, 보장왕 1년 말에는 당의 亳州刺史 裴行莊이 고구려정벌론을 제기했고, 이듬해에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간 鄧素가 懷遠鎮에 戍兵을 증파하여 고구려를 압박하자는 주장도 제기하였다.¹⁵⁾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당 태종은 “연개소문이 그 임금을 시해하고 國政을 오로지하니 진실로 참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거란·말갈병을 동원하면 어떠냐고 고구려 침략의사를

11) 《資治通鑑》권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貞觀 19년.

12) 또 666년에 신라로 망명한 淵淨土는 연개소문의 아우이므로 政亂에 위협을 느꼈을 것인데, 그는 연개소문가의 권력유지나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박약했다고 할 수 있다(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304쪽).

13) 李乃沃, 앞의 글 참조.

14) 《三國史記》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3년.

15) 《資治通鑑》권 196, 唐紀 12, 太宗 中之中, 貞觀 16년 및 권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貞觀 17년.

朝臣들에게 타진하였다. 이에 長孫無忌는 연개소문이 자기의 큰 죄를 알고 당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수비를 엄하게 할 것이므로 그가 自安하여 驕愴함을 기다려서 정벌하자고 주장했다.¹⁶⁾ 그도 고구려정벌론에 찬성하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하자는 신중론자였다고 하겠다.

한편 백제의 빈번한 침입과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있던 신라는 선덕여왕 11년(642)에 金春秋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내어 원병을 청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竹嶺西北의 영토 반환을 요구하여 실패하였다.¹⁷⁾ 이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백제에게 수십 성을 공취당하였으며 양국이 連兵하여 기어코 신라를 취하려 한다면 원병을 청하였다.¹⁸⁾ 당은 초기부터 삼국의 상쟁을 잘 알고 있었던 바, 신라는 고구려·당 사이의 대립관계를 의식하여 백제의 침공을 강조하면서도 백제·고구려가 連兵한 것처럼 꾸며서 당에게 적대 의식을 조장시킴으로써 더욱 당과의 외교적 밀착을 시도하였다.¹⁹⁾

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구려는 삼국의 평화와 국제질서에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판단했을 터인데, 백제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에게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라를 당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보장왕 3년(644)에 당의 司農丞 相里玄獎이 고구려에 와서 백제와 더불어 전쟁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신라를 치면 명년에 출병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당은 삼국의 상쟁에 중재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신라를 두둔하여 끌어들이고 백제를 무마하며 고구려 정벌론에 입각하여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연개소문은 현장에게 신라가 탈취해 간 땅을 돌려주지 않는 한 신라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당의 권유를 완강히 거절하였다.²⁰⁾ 또 당에서 蔣儼을 파견했지만 그를 굴에 가두고 위협하였다.²¹⁾

16) 《三國史記》 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2년.

17) 《三國史記》 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원년 및 권 5, 新羅本紀 5, 선덕왕 11년.

18)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선덕왕 12년.

19)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慶熙史學》 9·10, 1982) 참조.

20) 《三國史記》 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3년.

21) 《三國史記》 권 49, 列傳 9, 蓋蘇文.

이제는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사신을 위협하고 벌할 만큼 대립이 날카로워지면서 외교적 타협은 결렬되었다. 그 동안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까지도 고구려의 독자성이 유지되는 한 전쟁만은 피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하였으나 당이 전쟁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 고구려의 대당외교가 이전의 대수외교와 다른 점이다.

2) 초기 전쟁(645)

당 태종은 相里玄獎과 蔣儼 등의 외교가 실패하자 고구려 침략의 뜻을 굳히고 고구려 보장왕 3년(644) 11월에 원정명령을 내렸다. 우선 선박 100여 척을 건조하여 군량을 실어오게 했고, 營州都督 張儉 등에게 유주·영주군사와 契丹·奚·靺鞨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나가게 하였다. 또 太常卿 韋挺을 餽運使로 삼아 북쪽은 영주, 남쪽은 옛 大人城에 군량을 저장케 하였다.

그리고 당 태종은 親征에 앞서 수 양제를 따라 참전했던 鄭天璠에게 行在所의 사정을 묻는 주밀성도 보였다. 정천숙은 “요동은 길이 멀어 양곡을 수송하기가 곤란하고 東夷는 守城을 잘하여 갑자기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²²⁾ 그러나 요동을 침공하여 고구려 병력을 요동으로 집결케 하고 舟師(水軍)를 東萊에서 평양으로 보내 水陸兩軍이 합세해서 고구려를 정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정벌의 명분은 ① 왕을 시해한 연개소문을 응징하고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 ② 隋대에 전사한 백성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 ③ 사망이 크게 평정되었는데 오직 고구려만이 평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²³⁾

당의 침략군은 平壤道行軍大總管 張亮이 4만 3천의 병력을 전함 5백 척에 탑승시켜 萊州에서 평양으로 출동하고, 遼東道行軍大總管 李世勣과 부총관 道宗이 騎兵 6만 명과 降胡를 통솔하고 요동으로 나왔다. 그리고 攻城器械로 雲梯·衝車가 동원되었으나 주된 무기는 弓矢였다.

22) 《三國史記》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3년 11월.

23) 당 태종이 말한 必勝 5개 조건은 “一曰 以大擊小 二曰 以順討逆 三曰 以理乘亂 四曰 以逸敵勞 五曰 以悅當怨”인데, 고구려의 정란을 이용하려 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資治通鑑》권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貞觀 18년).

이 해 4월 당의 육군은 요하를 건너서 이세적은 현도성을, 도종은 新城을 포위하였다. 장검이 호병을 거느리고 建安城을 포위·공격하자 이에 대항하던 고구려 병사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어 이세적·도종에게 蓋牟城을 함락당했는데 城兵 1만 명이 포로가 되고 양곡 10만 석도 빼앗겼다.

한편 당의 수군은 卑沙城을 공격해 왔다. 성은 4면이 懸絶하고 오직 西門만 오를 수 있었는데 당장 程名振과 王太度が 군을 이끌고 오르니, 성병 8천 명이 함몰되는 처절한 항전에도 불구하고 5월에 함락당하였다.

당 육군은 계속 진군해서 요동성을 공격했다. 이 성은 수의 침입 때도 死守되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므로 고구려·당 양측에서 지원도 컸던 격전장이었다. 이 요동성이 무너지면 요동일대가 위태롭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 태종이 직접 이 성의 공격에 참가했고 고구려에서는 신성·국내성의 步騎 4만 명을 보내어 구원하려 했다. 고구려 구원병은 처음에 張君父의 군을 격파했지만 도종·이세적의 기·보병에게 패하여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요동성은 12일간 적의 포위 속에서 시조 朱蒙에게까지 수호를 빌며 신념에 찬 항전을 계속하였다. 적의 砲車로 쏘는 大石이 3백 보를 날아와 성이 파손되었으며 衝車로 城樓를 부수었다. 적의 銳卒이 長竿에 올라 西南樓를 불질렀으므로 城衆이 동요했고 이 틈에 당병이 입성하여 끝내 함락당하였다. 이에 고구려인으로 전사자가 1만 명, 포로된 城兵이 1만 명, 남녀가 4만 명이었고, 양곡 50만 석도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당병은 요동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白巖城을 포위·공격하였다. 이 때 城主 孫代音은 몰래 그 심복을 당병에게 보내어 항복하겠다는 신호로 刀鉞을 던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병사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적과 통하여 당 태종이 주는 唐旗를 성 위에 세워서 적병이 성중에 진입한 것으로 속여 항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과 내응하여 항복한 예는 과거 대수전쟁에서는 없었던 일로 감투정신이 그만큼 약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요동 국경선 부근에서 적의 침공에 맞서 최후까지 항전하여 固守된 성은 安市城과 建安城이었다.

고구려에서는 北部靺婁 高延壽와 南部靺婁 高惠眞에게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편성된 15만 명의 군사를 주어 안시성을 구원하게 하였다. 당 태종의 지휘 아래 안시성을 포위하고 있던 적군은 우선 이들 구원병과 대치해야 했

다. 이 때 태종은 고연수의 전략을 세 가지로 추측했다. ① 고연수가 안시성과 연결하여 保壘를 만들고 험한 곳에 자리잡고 기다리며 말갈병을 놓아 당병의 牛馬를 노략질할 것이라는 추측(上策), ② 안시성의 군대를 빼어 밤을 타서 함께 도망할 수 있다는 것(中策), ③ 당병과 직접 대결하리라는 것(下策)인데 ③을 택할 것으로 예견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상대방의 전략·전술을 가능한 몇 가지로 추측하여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한편 고연수 병영에서도 전략회의가 있었던 듯한데 연로한 對廬 高正義는 지구전에 의한 유격전과 餽運兵의 격파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싸우지 않는 반면 시일을 오래 끌면서 奇兵(기습하는 군대)을 나누어 보내어 적의 糧道를 끊음만 같지 못하다. 양식이 다하면 적은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곧 이길 수 있다(《三國史記》 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4년).

이것은 위의 태종의 추측 가운데 ①의 상책과도 통하며 적병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선의 전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연수는 적과 직접 대결을 선택했고 또 적의 기만전술에 속아 해이한 전투태세로 인해 패배하였다.

당 태종은 대장군 阿史那杜尔에게 돌궐병 1천을 주어 고연수군을 유인했고, 고연수는 거짓 패주하는 그들을 추적하여 안시성 동남쪽 8리 지점의 산에 포진하였다. 40리를 이은 고연수의 軍勢를 보고 당 태종도 두려워하면서 우선 기만전술을 폈다. 사람을 고연수에게 보내어 말하되, “당은 왕을 시해한 彊臣을 問罪하는 것이고 交戰이 본심은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가 臣禮를 닦으면 잃은 땅도 회복될 것”이라 전하였다. 고연수가 이 말을 믿고 방비를 게을리하는 틈에 적은 밤을 타서 포위한 다음 일제히 공격해 왔다. 미처 전열을 갖추지 못한 고구려군은 대패하여 3만여 명이 전사하고 고연수·고혜진 등은 항복하였다. 포로가 된 육살 이하 장관 3천 5백 명은 중국 본토로 끌려갔고 말갈병 3천 3백 명은 전원 피살되었다. 또 말 5만 필·소 5만 필·明光鎧 1만 領, 기타 무기도 모두 적에게 넘어갔다. 이 전투의 패배는 고구려에게 큰 충격을 준 동시에 石黃城·銀城의 군사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

했으며 수백 리에 人烟이 끊어졌다고 할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²⁴⁾ 여기서 고구려군의 武裝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고연수·고혜진 등은 당병의 앞잡이가 되어 안시성전투에도 참가하면서 고구려군의 상황을 제공했던 것이다.

안시성은 험하고 10여만 명의 군사가 精銳하며 그 城主는 재능과 용맹이 있어 연개소문의 쿠데타에도 불복했었다는 바, 그 성주는 楊(梁)萬春이라 전한다.²⁵⁾ 한편 안시성 남쪽에 있는 건안성은 병력(약 5만 명으로 추산)이 많지 않고 양식 또한 적다고 알려졌으므로 당병은 건안성을 먼저 치려는 작전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군량이 안시성 북쪽에 있었으므로 안시성군에게 糧道가 차단될까 염려하여 먼저 안시성을 공격해 왔다.

적에게 포위된 안시성군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성을 굳게 지켰다. 때로는 수백 명의 군사가 줄을 타고 성을 내려가 당병과 싸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루에도 6, 7차 교전하였다. 衝車(撞)와 礮石(포석)에서 돌이 날아와 城堞을 파괴하면 木柵으로 이를 막아 적병의 침입을 방지하였다. 또 당병은 60일간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밤낮으로 土山을 쌓고 성 안을 굽어보았는데 이 토산이 무너지면서 성의 일부도 무너졌다. 이곳으로 적병이 몰려와서 격렬한 접전을 벌였는데 토산을 안시성군이 점령하였다.

때는 9월, 요동에는 일찍이 寒氣가 닥쳐 초목이 마르고 물이 얼었다. 치열한 전투가 5개월간 지속되면서 당군의 군량도 다해갔으므로 당 태종은 안시성의 공격을 포기하고 退歸를 명령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 당에게도 인적·물적 손실이 커서 전사자가 2천 인이고 戰馬는 10중 7, 8이 죽었고 얻은 것이라고는 없었다. 따라서 당 태종도 이 원정을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구려측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컸던 것이다. 현도성·횡산성·개모성·마미성·요동성·백암성·비사성·협곡성·은산성·후황성의 10개 성을 함락당하여 이들 지역에서 7만 명이 붙잡혀 중국으로 끌려갔고 신성·건안성·주필산의 전투에서 4만 명이 전사당하였다.²⁶⁾ 더욱이 고연수의 15만 병력이 일시에 무너지고 고연수 등 군지휘관

24) 《舊唐書》권 199, 列傳 149, 高麗.

25)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499쪽.

26) 《資治通鑑》권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貞觀 19년 10월.

3천 5백 명이 당병에게 부역하다가 중국으로 끌려갔다. 또한 이 지역의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 복구에 오랜 시간과 국력이 필요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한 10만 안시성 사람들의 항전은 戰勢를 고구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안시성을 수호함으로써 당병의 발을 묶어 더 이상의 진격을 저지시키고 그들의 평양 직공을 예방하는 동시에 고구려인의 투혼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보장왕 4년의 이 전쟁은 당으로 하여금 전략을 변경케 하여 고구려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3) 중기 전쟁(647~665)

보장왕 4년(645)의 전쟁은 쌍방의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이 따랐기 때문에 향후 당의 전략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에서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화해할 것을 요청했지만 말이 허황되고 당의 사신에게 거만하며 늘 邊隙을 엿본다는 이유로 목살당하였다. 그리고 태종은 고구려 정벌을 거론하였는데²⁷⁾ 이는 보장왕 6년 2월에 해당하며, 당 조정에서 여러 관료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공격하더라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 앞서 大駕가 親征하였을 때(645) 그 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함락된 성들은 실제 곡식을 거두었으나 가뭄이 계속되어 태반의 고구려 백성들은 식량이 모자랐다. 이제 만일 偏師(小部隊)를 보내어 그 疆場을 교대로 侵擾해서 그들로 하여금 출동에 피곤하고, 쟁기를 놓고 保壘에 들어가기로 수년간 계속하면,千里가 쓸쓸하게 되어 인심이 저절로 떠나서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資治通鑑》권 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貞觀 21년 2월).

요컨대 대병력에 의한 침략에 실패한 당은 守城戰과 유격전에 능숙한 고구려를 일시에 멸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長期戰略을 채택하고 일차로 압록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천해 갔다.

27) 《資治通鑑》권 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貞觀 20년.

그리하여 고구려 보장왕 6년(647) 3월에 당의 牛進達·李海岸의 1만 병력은 萊州에서 樓船으로 바다를 건넜으며, 李世勣·孫貳郎이 통솔한 3천 명과 영주도독의 府兵은 요하를 건너 新城道로 진입했는데 이 양군은 水戰에 익숙한 군대였다. 고구려의 南蘇城軍은 이세적의 군을 맞아 곧세게 항전했으므로 적병은 성의 외곽을 불지르고 퇴각하였다. 한편 石城의 고구려군은 우진달군과 100여 차례나 싸웠으나 성을 함락당하였다. 다시 적병이 積利城 아래로 진격하므로 1만여 명이 항전하여 2천 명이 전사하였으나 당병을 패퇴시켰다. 이 해 12월에는 보장왕의 둘째 아들인 任務를 謝罪使로서 당에 파견하였다. 이는 평화를 바라는 고구려측의 성의있는 使節이었지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보장왕 7년 정월에는 당의 薛萬徹·裴行方이 3만 병력을 거느리고 내주에서 바다로 건너왔다. 烏胡鎮(요동반도 남단의 섬)將 古神感도 바다를 통해 침입했다. 이에 고구려군은 步騎 5천 명을 출동시켜 易山에서 교전했고, 그날 밤에는 1만 병력으로 고신감의 戰船까지 습격하였다. 이 상황으로 보아 고신감의 군대는 고구려군에 의해 크게 격파된 듯하다. 또 설만철이 압록강으로 들어와 泊灼城 남쪽 40리 지점에 포진했다. 이를 안 박작성주 所夫孫이 步騎 1만을 거느리고 나아가 응전해서 성을 고수하였다. 이 때 고구려장군 高文이 烏骨城·安地城 등의 군사 3만여 명을 거느리고 박작성을 구원하여 설만철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²⁸⁾

이 해 6월에 당은 고구려가 困弊하다고 판단하여 다음해에 30만 명을 동원해서 정벌할 것을 의논했지만 房玄齡의 반전론에 부딪히기도 하였다.²⁹⁾ 한편 신라에서는 金春秋를 당에 파견하여 羅·唐軍事同盟을 더욱 공고히 했는데, 이후 고구려·백제의 신라침공을 전하면서 구원을 청하여 당을 더욱 자극시켰다.

28) 《三國史記》권 22, 高句麗本紀 10, 보장왕 下, 7년 정월에는 泊灼城이 함락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新唐書》권 94, 列傳 19, 薛萬徹에는 출격한 所夫孫을 斬하고 성을 함락하였다고 했다.

29) 방현령은 고구려가 臣節을 잃지 않았고 당의 백성을 노략질하지 않았으며 後世의 우환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단지 舊王의 치욕을 복수한다든가 신라의 원한을 대신 갚아 준다든가 하는 이유로 원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新唐書》권 96, 列傳 21, 房玄齡). 이런 주장은 그간 고구려가 당에 대해 성의있는 교섭을 가졌고, 그것이 당의 관료 일부에 인정되었다는 입장에서 피력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구려 보장왕 8년(649)에 당 태종이 죽고 高宗이 즉위하자 수년간은 고구려를 침략하지 않았다. 《舊唐書》에는 고종이 즉위한 이 해에 任雅相·蘇定方·契必何力 등이 침입했으나 모두 큰 공없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은 태종이 죽은 틈을 타서 고구려가 공격해올까 염려하여 군사적 시위를 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고구려는 당과 전쟁이 없던 보장왕 13년에 安固에게 고구려·말갈병을 주어 거란을 정벌했지만 오히려 松漠都督 李窟哥에게 新城에서 패하였다.³⁰⁾ 이 거란은 당에 복속했으므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또 이듬해에는 신라의 33성을 공취했던 바, 이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원조를 청하고 당은 이 해 5월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 때 요하를 경계하던 고구려군은 程名振·蘇定方の 병력이 적음을 보고 성에서 나와 貴端水를 건너 대적하다가 1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당병은 성의 외곽과 촌락을 불지르고 돌아갔다.

이와 같이 당은 소수의 병력을 자주 보내어 요동지방에 침입시켜 싸우다가 물러가는 것을 장기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 기간의 전과는 기록대로 당병의 일방적 승리였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다만 소수의 병력일수록 난폭할 가능성이 커서 요동의 초토화작전으로까지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언제 다시 당의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과 긴장이 계속되어 불안과 피로가, 특히 요동의 고구려군에게 더욱 누적되었을 것이다. 이런 대결 속에서 전쟁을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고구려는 보장왕 11년과 15년에 사신을 당에 파견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신라의 무열왕 4년(657)경 신라와 당 사이에는 백제를 먼저 공격하자는 전략이 짜여진 것 같다. 따라서 보장왕 17년과 18년에 있었던 당의 고구려 침략은 같은 왕 19년에 백제를 멸하려는 陽動作戰이었다고 볼 수 있다.³¹⁾ 보장왕 17년에는 정명진·설인귀가 고구려군에게 패퇴하였고³²⁾ 이듬해에는 설인귀가 橫山에 침입해서 고구려 장군 溫沙門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고구려

30) 《資治通鑑》권 199, 唐紀 15, 高宗 上之上, 永徽 5년.

31) 李昊榮, 《新羅의 三國統合過程 研究》(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85), 133쪽.

32) 이 때 정명진은 赤烽鎮에서 고구려의 豆方婁가 거느린 3萬軍과 싸웠는데, 정명진이 역습하여 2천5백 명을 전사시켰다고 하였다(《資治通鑑》권 200, 唐紀 16, 高宗 上之下, 顯慶 3년 6월). 이는 《三國史記》와 아주 다르다.

의 관심을 계속 요동방면으로 돌린 다음 660년에 백제를 쳤다고 믿어진다.

아마도 당은 백제를 멸한 여세를 몰아 고구려도 멸하려 했던 듯하다. 보장왕 19년 말부터 보장왕 21년까지 3년간은 유독히 집요한 침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보장왕 19년 11월에는 계필하력·소정방·유백영·정명진 등이 침입하였다. 같은 왕 20년 정월에는 河南·河北·淮南 등 67州兵 4만 4천 명을 모집하였고 蕭嗣業은 回紇 등 諸部兵을 통솔하고 평양으로 향하였다. 4월에는 이들 여러 군부대를 재편성한 듯한데 35軍으로 묶어 水陸으로 아울러 진격하였다. 바로 이 때 당에서는 李君球의 반전론이 있었으나 대세와는 무관했던 듯하다.³³⁾ 8월에는 바다를 건너온 소정방군이 溟江의 고구려군을 파하고 평양 근교에까지 육박하였다. 한편 9월에는 男生이 精兵 수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방어했는데 계필하력의 군이 얼음 위로 건너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여기서 고구려군 3만 명이 전사하여 남생이 대패했으나 당병은 철병하였다. 또 다음해인 보장왕 21년에는 龐孝泰가 蛇水(合掌水)로 침입하자 연개소문이 당병을 전멸시키는 대전과를 올렸다. 이에 방효태와 그 아들 13 명도 모두 전사하였다. 또 소정방은 평양 근교에까지 침입했다가 큰 눈을 만나 돌아갔다.³⁴⁾ 이에 대하여 《三國史記》에서 “무릇 전후의 遠征에 모두 큰 공없이 물러났다”고 평가함으로써 고구려의 강력한 저지로 당병이 패퇴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전락에 의한 당의 소수병력이 요동지방을 자주 침입하였고 보장왕 20년(661)과 21년에는 압록강을 건너 평양근교까지 육박하였다. 이는 당이 해상 루트를 적극 활용한 증거이지만 고구려의 전투력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이나 그 아들 남생이 직접 출전했던 것이다.

4) 말기 전쟁(666~668)

이 시기는 최후의 결전기였다. 당에서는 대병력을 연속적으로 투입하였고

33) 그의 반전론은 高宗의 親征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

34) 이 때 신라 김유신 등이 소정방에게 군량을 수송해 주었다(《三國史記》권 42, 列傳 2, 金庾信 中).

고구려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항전했지만 끝내 방어벽이 무너지고 國亡民散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고구려 보장왕 22년(663)부터 24년까지 3년간 침입하지 않던 당이 이렇게 대병을 휘몰아 급전을 서두른 이유는 고구려 내부의 권력항쟁에 따른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즉 보장왕 24년에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막리지 연개소문이 죽자 곧 그 아들 사이에 莫離支職의 쟁탈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 세 아들 男生·男建·男産 중에서 장자인 남생이 막리지가 되었다. 그가 지방의 여러 성을 순방하고 있는 사이에 남건이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군사를 동원하여 남생을 쳤다. 이에 남생은 國內城으로 달아나 그 아들 獻誠과 함께 당으로 망명하였다.³⁵⁾ 이후 남생은 당병의 향도가 되었는데, 고구려의 정란과 남생의 附唐이 얼마나 고구려에 불리한 상황을 전개시켰는가 하는 것은 賈言忠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요동의 戰場에서 돌아오자 고종은 전쟁의 승산을 그에게 물었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필승을 장담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난 날 先帝가 問罪할 적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오랑캐에게 틈(내부분열)이 있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속담에 ‘軍에 內應하는 자가 없으면 중도에서 回軍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남생의 형제가 집안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오랑캐의 내부사정을 다 알고 있으며 장수들은 충성을 다하고 군사들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臣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新唐書》권 220, 列傳 145, 高麗).

이는 고종의 비위를 맞춘 일면도 있겠으나 고구려의 모든 정보가 당에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극적 침략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당의 기세와는 반대로, 고구려에서는 통솔자와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여 각지의 전선에서 성과 병력이 무너졌다. 당에서 병력을 보

35) 淵氏家の 계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曾祖 子遊—祖 太祚 父 淵蓋蘇文 子 男生 孫 獻忠
淵淨土 男建 獻誠—曾孫 隱—高孫 愍
男産

(李昊榮, 〈高句麗의 敗亡原因論〉,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篇, 1992, 55쪽).

낸 것은 고구려 보장왕 25년(666)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實戰은 보장왕 26년에 전개된 점으로 보아 보장왕 25년은 당의 전쟁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다.

보장왕 26년 9월, 당의 李勣(앞의 이세적과 동일인)軍은 新城을 공격하였다. 신성은 고구려 서변의 요새인데, 城兵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다. 성주를 비롯한 일부 병사는 최후까지 사수하자는 항전을, 다른 일부는 적에게 항복하자는 투항을 주장하였다. 결국 城人 師夫仇 등이 성주를 묶어놓은 다음 성문을 열어 항복하였다. 이 신성의 함락으로 인하여 주위의 16개 성이 한꺼번에 함락되었다. 이 때 막리지 남건이 군사를 보내어 당의 진영을 습격했지만 당의 장수 설인귀에게 패하였다. 그러나 다시 고구려군은 金山에서 高侃軍을 무찌르고 북상했지만 설인귀에게 패하여 5만 병력이 전사하였다. 이내 남소 · 목저 · 창암성이 함락되었다. 이 때 남건은 군사를 옮기어 鴨綠津을 지켰으므로 일시적으로 당병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동지방에서는 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안시성 아래서는 고구려군 3만 명이 郝處俊의 당병을 습격하여 난전을 계속했으나 역시 패하였다.

보장왕 27년 2월에는 설인귀의 정예부대에게 扶餘城(農安 부근)이 함락당하자 그 주변의 40여 성이 항복하였다. 이 때 남건은 5만 명의 병력을 보내어 부여성을 구하려 했으나, 薛賀水에서 이적의 군과 맞서 싸우다가 3만여 명이 전사하고 크게 무너졌다.

이같이 당의 육군이 요동지방을 진격하는 동안 郭待封의 水軍은 바다로 평양을 향하여 서로 호응하였는데, 9월에는 唐의 諸軍이 압록강(의주)에 집결하였다. 고구려군이 항전했지만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당병을 막지 못해 2백여 리를 후퇴하였고 다시 辱利城(淸川江 北?)과 여타 여러 성도 함락당하였다. 그러나 당병이 요동지방을 모조리 석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항전했던 11개 성을 남겨 둔 채³⁶⁾ 평양을 향해 남하하였다. 한편 옛 백제 땅에 주둔한 劉仁願이 당병을 거느리고, 또 2만 명 정도로 추측되는 신라군³⁷⁾이 북상하여 평양 근처로 진격하였다.

36) 《三國史記》 권 37, 志 6, 地理 4의 말미에는 압록강 이북에서 항복하지 않은 11성 · 항복한 11성 · 도망한 7성 · 攻取한 3성을 특별히 기록해 놓았다.

37) 《三國史記》 권 44, 列傳 4, 金仁問條에서 이 때 신라군 20萬을 출동시켰다고 하

이렇게 불리한 전황이 전개되자 도처에서 후퇴한 고구려 병사들이 평양성으로 몰려들어 최후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의 전병력이 포위망을 압축해 왔는데 계필하력군이 먼저 평양성 아래에 도착했고 이적의 군이 뒤따랐다. 이들 당병은 약 1개월간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물론 막리지 男建도 퇴귀하여 굳게 성문을 닫고 자주 군사를 성밖으로 보내 당병과 싸우게 했지만 전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패נות 듯했다. 이 때 남견은 군사를 승려 信誠에게 맡기었던 바, 신성은 小將이었던 烏沙·饒苗 등과 모의해서 적장이적에게 내용할 것을 약속하고 성문을 열어 당병이 입성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에 보장왕이 남산 이하 영수 98 인을 거느리고 백기를 들어 항복하니, 이로써 고구려는 보장왕 27년(668)에 國亡民散을 고하였다.

고구려의 대당전쟁표

연 대	전 장	당 군	고 구 려 군
645	卑沙城 (요하)→遼東	張亮 程名振 王大度 江 淮 등 軍 4萬 長安 洛陽모병 3千 전함 500척 唐太宗 李世勣:步騎 6萬 蘭·河州 降胡 江行本·丘行淹·道宗·張文 父·馬文舉·張儉·傅伏愛 阿史那杜爾(돌궐병 1千騎) 長孫無忌·牛進達·薛仁貴	卑沙城軍 玄菟城軍 建安城軍 新城軍 遼東城軍(신성·국내성군 步騎 4萬이 구원) 白巖城軍(城主 孫代音) 安市城軍(城主 梁萬春):10萬衆 (高延壽·高惠眞의 15萬 원군)
647	(萊州)→石城 積利城 (요하)→南蘇城 등	牛進達·李海岸:1萬? 李世勣·孫貳郎:3千 營州都督府兵	石城軍 積利城軍 南蘇城軍 등 1만餘(戰死:3千)

였다. 그러나 신라의 백제정벌에 精兵 5만을 동원한 것은 국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볼 때, 고구려정벌에는 2만 정도를 파병했다고 생각한다.

연 대	전 장	당 군	고 구 려 군
648	(萊州)→압록수 泊灼城(安平河口)易山	薛萬徹·裴行方·古神感	泊灼城軍:步馬 1萬餘(城主所夫孫)(高文이 오골성·安地城 등 兵 3만으로 구원)
649		任雅相·蘇定方·契苾何力 (皆無大功而還:구당서 고구려전)	방어
655	(요하)→貴端水 (渾河)	程名振·蘇定方	城軍(1천여 인이 전사하고 포로됨)
658	赤烽鎮	程名振(契丹兵) 蘇定方:(자치통감)	赤烽鎮軍(장수 豆方婁 3萬 통솔:2천5백이 戰死함)
659	(요하)→橫山	薛仁貴	橫山城(장수 溫沙門)
(660)	(萊州)→百濟	(新羅軍·蘇定方)	(百濟軍:敗亡)
660		契苾何力·劉伯英·蘇定方	방어
661	(水陸)→涇江· 馬 邑 山 平壤城·압록강	河南北·淮南兵 4萬4千 蕭嗣業(回紇 등 諸部兵) 任雅相 등 35軍	男生:精兵 數萬(3萬 戰死함)
662	平壤부근 蛇水	龐孝泰軍과 그 13子 全滅 함. 蘇定方	淵蓋蘇文軍
666. 12.	(요하)→新城 (산동반도)→(평 양을 향함) 金山 南蘇城·木底城	李勣·安陸·郝處俊·龐同 善·契苾何力 轉糧使 高侃·男生·馮師本 元萬頃(유배)	男建軍(5萬餘人 戰死) 新城軍 16城 함락당함.
668. 9.	扶餘城 平壤	金仁問	夫餘城이 함락되고 40餘城 이 항복함(男建이 부여성 구하려고 항진. 5萬 명에 서 3萬이 戰死함) 보장왕·男建·男産과 大臣 98人이 항진(僧 信誠·烏 沙·饒苗 등이 당에 내응 하여 성문을 열어줌) 高句麗 敗亡

이상과 같은 고구려의 대당전쟁을 살펴보면 과거의 대수전쟁 때와 다른 몇 가지 양상이 엿보인다.

첫째, 적장과 내통하여 스스로 지키던 성의 문을 열어주고 적군의 입성을 기다려서 투항한 예가 보인다. 보장왕 4년(645)의 항전에서 白巖城主 孫代音은 항전과를 속이고 내응하여 투항하였다. 또 보장왕 26년에는 끝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하는 新城 城主를 묶어놓고 師夫仇 등의 항복에 의하여 신성이 함락되었다. 이런 중요한 성의 반란은 주변까지 영향을 주어 수십 성이 제풀에 꺾여 항복하는 여파를 가져왔다. 특히 668년의 최후결전장 평양성에서 忠信誠의 내용은 고구려의 허망한 패망으로 이어졌다.

둘째, 이러한 원인은 고구려인이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리면서 피로와 염증도 컸겠지만, 중앙정계의 정파적 분열과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정권이 백성의 신뢰를 상실했던 데 있었다고 믿어진다. 적어도 막리지직을 둘러싼 오랜 정쟁이 예상되지만, 연개소문가의 집권과 연개소문의 쿠데타, 그리고 그 아들 사이의 알력으로 이어진 것은 대당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의 무단독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호불신을 극도로 조장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연수는 연로한 高正義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패배했던 것이다.

셋째, 고구려는 새로운 전술·전략을 개발하는 데 태만했던 것 같다. 대당전쟁 때도 대수전쟁 때와 전술·전략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당은 고구려 보장왕 4년 대병력으로 침공한 이후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2대의 제왕에 걸쳐 실천하면서 고구려의 困弊와 내정의 변동을 끈질기게 기다렸던 것이다. 특히 말기의 전쟁에서 당은 水·陸 양군이 긴밀하게 상응하면서 지속적 장기전을 수행한 데 반하여 고구려에는 水軍의 활동이 미미하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는 전통적 守城戰으로 대응하면서도 대병력을 동원하여 당병과 회전한 예가 있다. 보장왕 4년의 고연수는 패배했지만 보장왕 21년의 연개소문은 방효태군을 전멸시켰다. 이 대병력 동원은 주목된다.

넷째, 고구려가 대당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찾는다면 對隋政策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고구려 정계는 강·온 양파가 있었는데 대수 강경파에 의하여 요서지방의 선제공격이 이루어졌고 수는 대고구려전쟁으로 멸망하였다. 그 결과 당이 탄생되었지만 당의 對高句麗觀은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수·당은 모두 패권주의에 의한 대외정책을 폈고 따라서 수·당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성을 절대시하였다. 여기에는 오직 복종 아니면 투쟁뿐인 듯도 했다. 그러나 수에 대한 선제공격만은 피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긴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형식적 조공과 책봉 속에서 고구려가 국제적 균형과 자국의 독자성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수·당에 대한 고구려의 강경파란 결국 강압적인 수·당에 대하여 독자적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당 관계에 이르러 강경파로 알려진 연개소문까지도 당과의 전쟁만은 막아보려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당의 일부 관료에게 인식되어 방현령의 반전론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결국 고구려의 대수·당전쟁과정에서 수에게 승리했던 그 자체 속에 이미 대당전쟁의 遠因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면 당에게 패망할 因子도 잉태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구려가 당에 대비한 증거는 보이지만, 수의 침략을 격퇴한 이후 당 또한 같은 전술로 방어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사실 새로운 전술·전략이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장기적 전쟁과 무단독제가 민심을 이반시켜 대당전쟁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는 그 전성기에 30만~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므로³⁸⁾ 수·당과 전쟁을 치를 때도 최소한 이 정도였을 것이다. 수·당에 비하면, 고구려는 땅도 좁았지만 병력뿐 아니라 인구도 적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패망원인이 아니고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의 근본목적은 국가의 유지 및 이익에 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가 절대적이라면 고구려는 그 독자성을 지키기 위하여 70여년간의 끊임없는 善戰에도 불구하고 패망으로 끝맺고 말았다. 이것이 신라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李昊榮〉

38)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渤海靺鞨. 옛 고구려 전성기에는 ‘強兵三十餘萬 抗敵唐家 不事賓伏’이라 하였다.

또 《三國史記》권 46, 列傳 6, 崔致遠傳에 고구려·백제의 전성기에는 ‘強兵百萬’이라 하였다.